

심장판막 수술후의 합병증에 대한 고찰

고려병원 흉부외과

이문균. 김병린. 장운하

고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8년 3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심장 판막질환 63례에서 개심술을 시행하였으며, 사용된 인공판막은 72개이었다(승모판 48개, 대동맥판 24개).

대상환자들의 평균연령은 47.8세(8세-69세)였고, 여자환자가 다소 많았다(M:F=27:36).

질환별로는 승모판막 35명, 대동맥판 11명 그리고 중복판막이 17명이었으며, 수술은 대부분 인공판막대치술을 시행하였고 소수의 예에서 승모판교련절개술, 삼첨판윤상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1례에서는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을 동반하여 시행하였다.

수술전 NYHA 심기능이 II 그리고 III의 환자가 77.3%였고, 판막질환의 원인으로 Rheumatic valvulitis 43례, Myxoid degeneration 19례 그리고 Ischemic origin 1례이었다.

심정지액은 대부분 고농도 포타시움 냉혈심정지액을 사용하였으며, 체외순환은 평균 약 144분, 대동맥차단시간은 평균 약 80분이었고 관류온도는 평균 25.5°C로 저체온법을 사용하였다.

판막수술후 합병증은 13명의 환자에서(21%) 발생하였고, 합병증은 부정맥 1례, 술후 출혈 4례, 혈흉 3례, 횡격막신경마비 3례, 술후 신경증이 1례 그리고 좌심실파열이 1례이었다. 수술사망율은 2명이 사망하여 3%이었다.